부벽樓바라보며 和氣찬對話

李共同委員長일행 平壤 이틀째

어파트窓서도 住民들 내다봐

모란峰招待所는 公式迎賓館

男·女重唱등 듣고 記錄映畵「平壤」관람

유서깊은淸流壁엔 風流客들詩새겨져

부수상 朴成哲이 베푼 <平壤>대한민국 올림픽대연회에서 봉신 一行이 방송 홍보용 촬영을 위해 둘러앉아 있다.

【平壤=大韓民國新聞通信放送共同取材團】 李厚洛남북조절위원회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보좌진단 수행원등 남의사정일행은 二일밤 부빈부 육림대 농라도가 굽어보이는 수색권은 모란봉내각 초대소에서 평양의 첫밤을 보냈다。 이들은 이에앞서 二일낮에는 북의 사람들과 첫대좌 南北조절위원장대리가 베푼 대연회에 참석 첫단을 보냈다。

○…북한측의 스포츠 바치겠다는 각오만으로 문문절을넘는 비밀의 행차였지만 오늘의 방문은 온 겨레와 세계가 지켜보는가운데 이루어진 감격적인 장면이라고 감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이날 연회에 참석한 사람은 南北조절위원장 李厚洛씨와 남측대표단 일행 그리고 북측의 金日成조선로동당위원장 金永柱조선로동당정치위원회위원 朴成哲내각총리 金一조선로동당정치위원회위원 등 북측의 고위층 인사들과 남측대표단 일행 그리고 주평양 체코슬로바키아 대사 부부 등 모두 三十여명이었다。

○…연회장에는 三十개의 좌석을 모두 준비해 놓았으나 실제 참석한 사람은 三十개의 좌석에 못미치는 二十八명이었다。 연회는 오후七시정각에 시작, 七시五十八분에 끝났는데 약二百五十명이 나누어앉을 수 있는 이 연회장은 三十개의 좌석에는 숨이 몇 번 돌때까지도 한동안은 차분한 분위기를 떨어지지 못했다。 그러자 李위원장은 제일 왼쪽의 金日成조선로동당정치위원회위원과 함께 들어섰다。

李위원장은 나중에 숙소로 돌아가 자기참모들에게 『오늘저녁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六十八장의 인상주』라고 말하기도。

대연회의 마지막 二十분은 ㊀여성민요창 ㊁여성가야금주 ㊂남성중창등으로 구성된 간단한 공연으로 끝났었다。

○…李위원장은 이날 만찬연설을 하면서 『오늘이 나의 첫 평양방문 (지난 五월二일) 에서 六개월째 되는날』이라고 말하고 『남북간의 평양방문은 나스스로를 바치겠다는 각오만으로 문문절을넘는 비밀의 행차였지만 오늘의 방문은 온 겨레와 세계가 지켜보는가운데 이루어진 감격적인 장면』이라고 감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이날 연회에 참석한 사람은 南北조절위원장 李厚洛씨와 남측대표단 일행 그리고 북측의 金日成조선로동당위원장 비롯한 보좌진단 수행원등 남의사정일행은 二일밤 부빈부 육림대 농라도가 굽어보이는 수색권은 모란봉내각 초대소에서 평양의 첫밤을 보냈다。 이들은 이에앞서 二일낮에는 북의 사람들과 첫대좌 南北조절위원장대리가 베푼 대연회에 참석 첫단을 보냈다。

○…북한측의 스포츠 바치겠다는 각오만으로 문문절을넘는 비밀의 행차였지만 오늘의 방문은 온 겨레와 세계가 지켜보는가운데 이루어진 감격적인 장면